

해외출장(호주) 요약

부서 : 도시모니터링센터

자료제공 : 변금선

작성일 : 2023년 10월 11일

게시요망일 : 2023년 10월 16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호주 빈곤과 청년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학술교류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장개요

- 출장지: 시드니(호주)
- 출장기간: 2023년 9월 10일(일) ~ 2023년 9월 18일(월)(7박 9일)
- 출장목적: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연구는 노동과 가족 생애사건이 청년기와 노년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임. 호주는 청년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대학재학생을 위한 청년수당 등을 운영하고 있음.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청년기 빈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사례를 수집하고, 동아시아 지역 사회정책 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회에 참석해 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 방향 관련 논의를 풍부히 하고자 함

- 일정

일 자	활 동 지 역	주 요 일 정
9.10(일)	인천/시드니	- 한국 출발
9.11(월)	시드니	- 시드니 가족돌봄 청년 지원기관 방문
9.12(화)	시드니	-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교수 면담 - 시드니 복지지원 센터 방문
9.13(수)	시드니	- 제19회 동아시아사회정책학회((the 19th East Asian Social Policy conference) 발표준비
9.14(목)	시드니	-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9.15(금)	시드니	-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9.16(토)	시드니	- 학술대회 및 인터뷰 자료 정리
9.17(일)	시드니	- 지역사회 청년통합을 위한 도시공간 현장방문
9.18(월)	시드니/인천	- 귀국

○ 주요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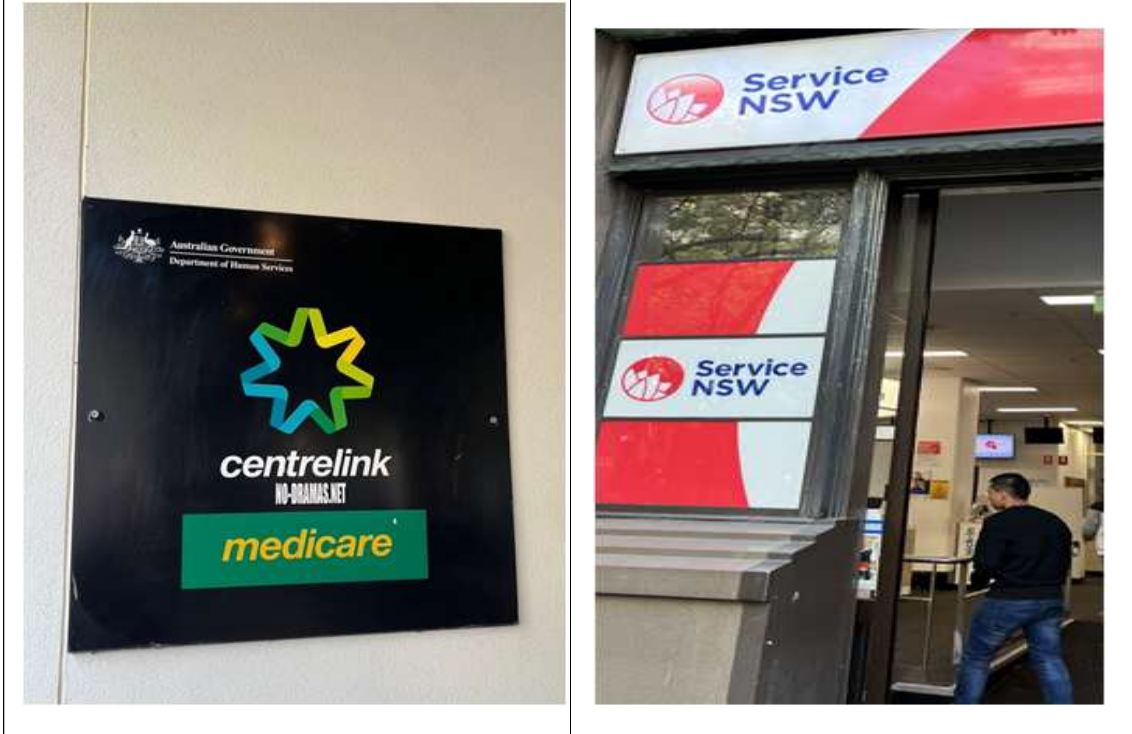
■ 가족돌봄 청년 지원기관 Carers NSW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UNSW 사회정책연구소 빈곤연구 전문가 인터뷰

<p>Article Published: 15 September 2021</p> <h3>Housing costs and poverty: analysing recent Australian trends</h3> <p>Bruce Bradbury & Peter Saunders</p> <p><i>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i> 37, 1073–1091 (2022) Cite this article</p> <p>904 Accesses 5 Citations 3 Altmetric Metrics</p> <p>Abstract</p> <p>This paper examines recent trends in Australian poverty, both measured using disposable income (before housing costs, BHC) and income after subtracting housing costs (AHC). Household-level data from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ousehold income surveys are used to estimate relative poverty rates since 1999–00. Changes in the Australian housing market, especially the large increase in house prices and falling home ownership, mean that trends in relative levels of poverty are quite different when using these two alternative measures of resources. While BHC poverty has decreased, AHC poverty has not—because of rising housing costs. These shifts have changed the profile of AHC poverty and raise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adequacy and sustainability of existing housing and income support policies.</p>	<p>ACOSS AND UNSW SYDNEY POVERTY IN AUSTRALIA 2020 PART 1: OVERVIEW</p> <p>UNSW SYDNEY acoss</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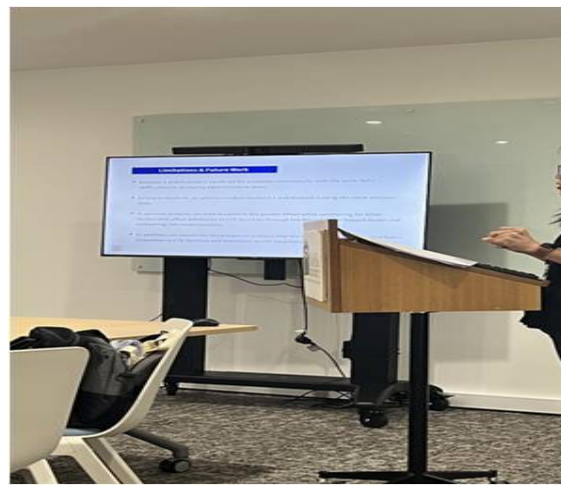
■ 시드니 청년지원전달체계 : 서비스 NSW,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센터링크) 방문



■ 제19회 동아시아사회정책학회 기초세션 참석 및 가족세션 발표



■ 특별세션 참석 및 코로나19 세션 발표



19th EASP Conference Presentation

The Disproportionate Impact of Pandemic on Young adults Work, Social connection and Emotional stress

Hyerim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Geumsun Byun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

6.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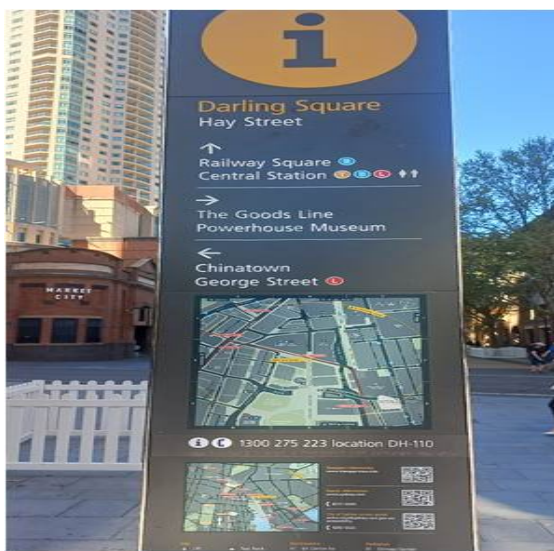
Unemployment - Gaps Within the Youth Population

subgroups	2018	2019	2020	2021	19-18(c)	20-18(c)	21-20(c)	11-10	12-10
sex									
male	38.3	38.8	41.4	38.2	-1.5	4.6	-2.2	6.1	-7.8
female	41.4	42.0	41.9	38.7	0.6	-0.1	-3.2	-0.8	-3.1
region									
non-Seoul	42.1	41.6	43.6	41.6	-0.5	2.2	-2.2	2.8	-4.4
Seoul	31.4	39.9	33.5	36.7	+9.5	2.7	-6.9	3.2	-9.5
parental bg									
Highly educated	30.9	31.1	37.6	38.0	0.2	6.5	-2.6	6.4	-9.1
Low education	42.7	43.2	42.6	39.2	-1.4	1.3	-3.4	2.7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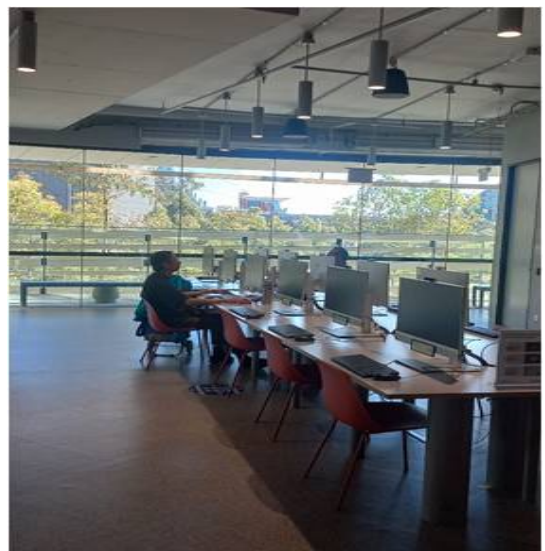
The Disproportionate Impact of Pandemic on Young adults Work, Social connection and Emotional stress

■ 달링스퀘어와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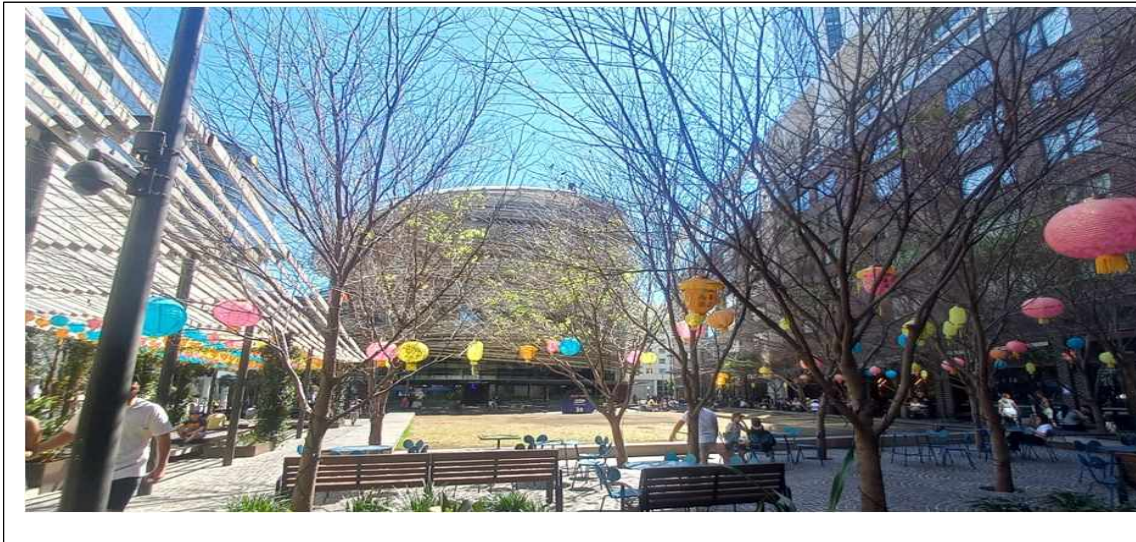
<달링스퀘어 안내지도>



<달링스퀘어 도서관>



<달링스퀘어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 Tumbalong Bvd(텀바롱 대로)
 <컨벤션센터, 달링스퀘어와 텀바롱대로>

<텀바롱대로>

<달링하버로 이어지는 텀바롱 대로 분수공원>

○ 시사점

1)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적극적 정책 확대 필요

- 가족돌봄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생애과정에서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해 다차원적인 결핍과 배제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집단임. 서울시는 최근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공식화하고,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함
- 호주의 가족돌봄 청년 정책사례는 가족돌봄 청년의 정의와 정책 지원의 수단을 보다 유연하고 폭넓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줌. 현재 서울시의 가족돌봄 청년지원 대상은 14-34세 청년이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가족돌봄으로 인해 직면하는 정서,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교육중단, 사회적 고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돌봄부담을 낮추기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도 필수적임
- 이와 더불어 호주에서는 가족돌봄 청년이 다른 복지지원을 신청해 수급할 경우, 일반 참여자보다 더 오랫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일례로, 청년수당과 구직자를 위한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상태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돌봄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유예함. 서울시에서도 가족돌봄 청년이 청년수당, 마음건강상담 등 청년 대상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조건을 유예하거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이행기 단절을 경험하는 청년을 위한 유연한 소득지원

- 호주의 청년수당은 공부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도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도 수당을 지급함. 이와 더불어 만22세부터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자산만으로 급여자격을 판단함. 급여수준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부부,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가구 유형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소득연동 급여체계를 갖추
- 서울시는 19-34세 비재학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미취업 청년을 위한 최초의 현금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청년의 이행기가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교육 기간의 연장과 재학 중 취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의 삶을 고려할 때 호주에서 시행 중인 재학생을 위한 청년수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호주 청년수당은 만22세부터 모든 청년이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년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급여권리를 부여함. 청년수당은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청년도 부모소득으로 인해 청년수당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제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확인됨. 청년의 복지수급권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3) 공간자원을 활용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전략 마련

- 달링스퀘어와 텀바롱대로의 지역개발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의 사회통합을 고려한 도시 설계와 그로 인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줌. 특히 최근 청년세대의 고립과 은둔,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할 때, 서울시 역시 청년 시민에게 도시공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공간자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전략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달링스퀘어와 텀바롱대로는 외부와 단절된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 그리고 재개발 이전부터 이어진 지역 주민들의 욕구, 나아가 달링하버라는 관광지역과 연결된 열린 공간이었음. 청년세대의 통합을 고려한 도시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되면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줌. 경계를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경계를 지우고 시민을 포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요구됨

4) 인구구조, 가족, 시장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 19회 동아시아 사회정책학회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자가 모여 앞으로의 사회정책이 인구구조,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대만, 일본, 홍콩,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 변화와 향후 방향을 논의함
-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사회적 위험은 다층적이고, 다차원적 형태로 변화할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비극과 청년 문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정책의 지체와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함
- 호주의 청년 지원과 가족돌봄 청년지원은 이러한 인구구조,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줌. 호주는 만22세 청년을 부모로부터 독립한 개인으로 간주하고, 개인소득만 파악하여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소득 변화를 고려한 차등적 급여 지급 전략을 적용하고 있었음.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청년세대의 취약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음. 그러나 현행 청년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의 의미가 변화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 안전망이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기준과 방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모니터링센터 변금선 부연구위원 (2149-1136)